

한미 FTA 경제효과 분야별 분석

# 農 15년간 10조 감소... 연 2조9천억 수혜 車

## 쇠고기 등 축산업 가장 큰 타격



### 농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5년간 국내 농업 생산은 연평균 6천7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쇠고기 등 축산업의 타격이 가장 커, 전체 생산 감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FTA가 2009년부터 발효되면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5년(2013년), 10년(2018년), 15년(2023년)차에 각각 4천465억원, 8천958억원, 1조36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추정했다. 미국산 수입 증가로 15년간 한해 평균 6천149억원 정도 국내 농업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뜻이다.

품목별 시장 개방(관세 철폐) 이행 기간이 7~18년으로 다양하지만, 15년 이전에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의 경우 최종 관세 철폐 연도의 생산 감소액이

15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결과다. 이번 추정 결과는 농경연이 작년 8월 20여개 주요 민감품목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10년안에 철폐된다는 가정 하에 제시한 연평균 8천700억원보다 2천억원 정도 적은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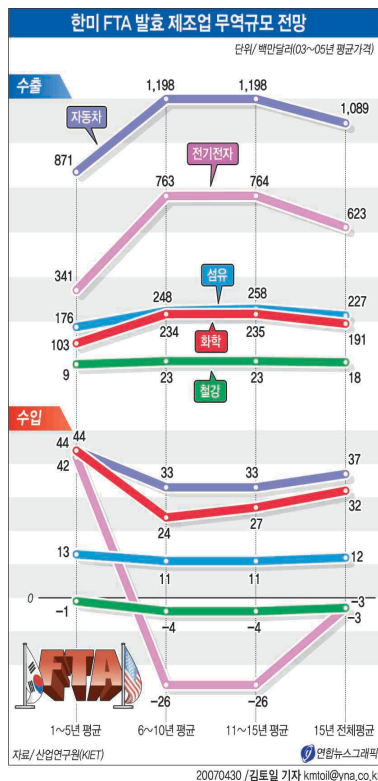
실제 협상 결과, 쇠고기·사과(후지)·배(동양배)·포도·고추·마늘 등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이 10년보다 긴 15년 이상으로 잡혔고, 오렌지·포도의 계절관세, 사과·고추·마늘·보리·쇠고기 등의 세이프가드(ASG) 등 다양한 개방 완충 장치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산보다 싼 수입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향후 15년간 한해 평균 372억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 품목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쇠고기 1천811억원 ▲돼지고기 1천526억원 ▲닭고기 707억원 ▲감귤 523억원 ▲유제품 504억원 ▲사과 369억원 ▲포도 361억원 ▲과채류 183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철강·화학분야 무역수지 악화



### 제조업



수출이 11억 달러, 수입이 6억2천만 달러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IET는 시나리오대로 수출이 늘어 나면 제조업 전체의 생산증가 효과는 연평균 5조5천억원에 이르고도 밝혔다.

이 가운데 최대 수혜업종은 단연 자동차였다.

자동차 산업은 KIET의 분석모델에서 관세 인하와 생산성 증대 효과가 모두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연평균 대미 무역액 증가액 7억9천600만 달러와 맞먹는 7억6천400만 달러의 연평균 대미 흑자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5조5천324억원으로 추정된 전체 제조업 생산 증가 가운데서도 자동차 산업은 절반이 넘는 2조8천542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증가 효과면에서 자동차 산업에 이어 전기·전자(1조1천903억원)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고 섬유(4천846억원)가 그 다음이었다.

반면, 철강과 화학분야는 혜택이 별로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반덤핑 무역규제에 노출된 철강분야는 관세 인하와 생산성 증대를 모두 고려해도 대미 수출과 수입이 연평균 각각 200만 달러씩에 그치는 '본전'이었고 생산 증가액도 고작 591억원(연평균)이었다.

화학분야는 연평균 생산 증가액은 3천584억원이었으나 대미 수출이 3천300만 달러 가량 늘어나는데 비해 수입이 1억800만 달러씩 늘어나 무역수지가 한해 7천500만 달러씩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 연 평균 281억 생산 축소 불가피



### 수산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되면 수산업의 생산은 15년 동안 연평균 281억원 줄어들고 원양어업과 민어의 생산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로 소비자들이 누리게 될 혜택은 15년간 연평균 2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양수산개발원 등 11개 연구기관은 30일 한미 FTA가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산업의 생산은 한미 FTA 이행 1~5년에 연간 234억원, 6~10년 연간 286

억원, 11~15년 연간 323억원 등으로 줄어 15년간 연평균 2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업종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원양어업이 185억원으로 가장 컸고 연근해 54억원, 양식 38억원, 내수면 4억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어종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민어 117억원, 명태 57억원, 넙치 37억원, 오징어 15억원, 대구 13억원, 기타 42억원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혜택은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25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돼 생산 감소액을 밀돌았다.

수산업의 수입은 15년 동안 연평균 1천174만달러 늘어나지만 수출은 일부 가공품을 중심으로 62만달러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수혜자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역시 자동차 산업이 협정 발효 15년간 연평균 2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생산 증가를 보이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철강분야는 대미 무역액이나 무역수지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추정됐고 화학분야 역시 생산 증가액이 크지 않을 뿐더러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 분야의 연구를 맡은 KIET는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공산품 대미

## 성장률·고용증가 기대 못미칠 듯



### 기대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대 효과가 무역을 제외한 성장률, 일자리 창출, 후생 등에서 협상 타결 이전의 전망치보다 줄어들고 농업 등의 피해 규모도 이전 예상치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타결 이전 영향 분석을 할 때 전제 조건으로 했던 쌀 개방, 서비스 분야의 개방 정도 등의 조건들이 실제 타결 과정에서 다른 사실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최종 한미 FTA 영향 분석 결과는 FTA 타결에 앞서 각 부문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치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연구기관들은 실제 타결 내용을 적용한데다 분석 방법도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KIET는 작년 3월 한미 FTA 체결로 실질 GDP가 10년 간 7.8% 늘고 국민 후생도 281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

번 분석에서는 실질 GDP와 후생 증가 규모가 각각 6.0%, 209억달러로 줄었다.

기존 분석에서는 쌀 개방과 서비스 부문의 20% 개방을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쌀이 개방 대상에서 빠졌고 서비스업의 개방 수준도 미미했다. 10년 누적 대미 수출 증가 예상치는 82억달러에서 133억달러, 수입 증가 전망치는 129억달러에서 86억달러로 각각 조정됐다.

10년간 늘어난 일자리 수 예상치도 55만1천명에서 33만6천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FTA 타결 전 예상에 비해 기대 효과가 줄었지만 동시에 피해 규모 추정치도 축소됐다.

가장 큰 피해 부문인 농업의 경우 작년 8월 농촌경제연구원(FTA) 발효 이후 10년 간 연평균 8천700억원 생산 감소를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15년 간 연평균 감소액이 6천698억원으로 2천억 정도 줄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제품간 경쟁으로 가격 인하 혜택



### 소비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소비자들의 혜택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는 지난달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연구기관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기관들은 제조업, 농업, 수산업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추산했지만 서비스의 경우 가격 인하 외에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계량화하기 힘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모든 후생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FTA가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선 FTA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하락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제품 가격이 이

전보다 직접적으로 떨어지고 수입선이 다변화되면 각종 제품 간 경쟁으로 간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까지 발생한다.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문제라 됐을 때 호주산 쇠고기 수입 가격이 올랐던 전례에서도 수입선 다변화가 수입품의 간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입선 다변화가 국내 제품의 경쟁도 촉진해 추가적인 가격 인하와 제품의 다양성을 증대시켜 소비자들은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내려가고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구기관들은 제조업의 경우 한미 FTA 이행 이후 15년 간 연평균 6천259억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농업은 연 평균 372억원, 수산업은 연평균 251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주식 외상거래 '눈덩이'

## 신용거래 경쟁적 완화... 고객·증권사 모두 위협

미수거래를 규제하는 동결결제제도 도입에 앞서 증권사마다 기존 미수거래 수요를 신용거래로 돌리기 위한 캠페인에 나서면서 주식 외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신용용자 한도와 대상 종목 수는 늘리고 담보유지비율과 보증금률은 내리는 등 앞다퉈 신용거래 문턱을 낮추면서 신용용자간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신용용자간고는 26일 현재 2조4천459억원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9천472억원에 달하는 미수금까지 더한 전체 외상간고는 3조3천931억원으로 작년 1월20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3조5천464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증시 과열을 진단하는 지표인 거래대금과 고객예탁금 대비 외상간고 비중은 각각 45.9%와 28.7%로 작년 1월 최고치인 40.4%와 25.9%를 이미 크게 웃돌고 있다.

4월 평균 외상간고도 금액으로 2조7천300억원으로 작년 1월의 2조8천887억원을 소폭 밑돌지만, 거래대금과 예탁금 대비 비중은 40.2%와 25.1%로 작년 1월의 33.9%와 21.7%를 크게 넘어섰다.

이는 외상간고가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의

미한다. 작년 1월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1,400선을 돌파한 직후 미수금이 3조원 근처까지 불어난 가운데 주가가 급락하자, 누적된 미수금이 주가 급락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근 이처럼 증권사들의 외상간고 급증한 것은 증시 활황이 지속되면서 외상거래의 주된 이용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난 가운데 증권사들마다 신용거래 조건을 크게 완화해 투자자들을 신용거래로 끌어들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수거래에 따른 연체이자와 위탁거래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증권사들은 5월부터 도입되는 동결결제제도로 미수거래가 위축될 경우 감소하는 수익을 보상받기 위해 신용거래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거래 대상 종목이 늘고 연속매매까지 허용되면서 사실상 미수거래와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며 "증권사마다 수수료 수입 때문에 신용거래를 경쟁적으로 완화하고 있어 고객과 증권사 모두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 GS칼텍스 2억원 상당 주유권 무료 제공

GS칼텍스는 지난달 30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2억원 상당의 주유권 무료 제공 행사에 돌입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6월15일까지 전국 GS칼텍스 주유소와 충전소, 홈페이지를 방문, 행운번호가 적힌 응모권을 받은 후 GS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1명의 당첨자에게는 40년 무료 주유권이 제공된다.

연철뉴스

## 상습 불공정 납품 거래 기업

# 공공입찰 참가 제한

## 중기청, 8월부터 시행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대·중소기업간 납품거래 시 상습 불공정거래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기술예치제(에스크로)가 실시되는 등 수·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중소기업간 납품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기업에게는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기준치 이상 벌점을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요청을 통해 2년간 행정기관 공공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기업(대기업)이 납품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

에 속하는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에스크로)'를 도입,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한 뒤 일정 조건을 갖춘 대기업만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기업이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납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어음 뿐 아니라 구매증빙카드 등 어음 대체결제방식으로 결제할 때에도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모기업을 중심으로 결성, 운영되고 있는 수탁기업협의회도 지역이나 업종별로 결성할 수 있게 허용해 공동기술개발이나 정보교류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상생법 개정을 계기로 수·위탁거래 전기 실태조사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활동을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철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파워존	기술엔지니어 채용 공고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03	062-710-0131
㈜오일청목회	사무관리 및 경리업무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5/03	062-373-5180
㈜동화이테크	생산부 사무보조 및 생산실적처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03	062-949-8321
스타일엔진	[스타일엔진] 경력직 미디어/자녀 모집	회사내규	05/04	011-610-4499	
광주공과대학원	정규직 여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5/04	062-369-0790
㈜범우	경리/출납 여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4	062-955-7885
기전산업(주)	자동차 부품조립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04	062-954-0330
㈜대창 E&T	정규직 경리 여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6	062-383-6831
회인한천(주)	총무/경리업무 담당 여사무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06	061-383-0345
광주특별자치공사	거리채 관리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5/11	062-226-1054
경주법주 명가상사	주류영업 및 거래처관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12	062-575-9706
신창기업(주)	영업관리/상품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1600~1800	05/12	062-571-2777
㈜일케이메세	콜센터 동공주점/이마트 광산점 판매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5/14	061-332-0835
㈜위드코비	코비현의원 코디네이터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5	062-3444-979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대학생, 입사 희망 1위 '삼성전자'

### 인크루트 5,023명 조사

대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취업전문기업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5천 23명을 상대로 13개 업종별 매출 상위업체 130곳 중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한국을 뽑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삼성전자(10.5%)가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와 대한항공이 5.6%로 2위에

올랐고 CJ(5.0%), SK(4.0%), 국민은행(3.8%), SK텔레콤(3.4%), 포스코(3.3%), 한국전력공사(3.1%), 유한킴벌리(3.0%), 현대자동차(2.6%)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업종별로는 건설 부문에서는 포스코 건설, 금융 부문은 국민은행, 기계·철강·조선 및 중공업 분야는 포스코, 물류운송 부문에서는 대한항공, 석유화학 부문은 SK, 외식·식음료 부문에서는 CJ가 각각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뽑혔다.

연철뉴스

## 금융계 입사 선호 1위 '국민은행'

### 커리어, 1,720명 조사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한국증권신문과 함께 지난달 21~24일 구직자 1천720명을 상대로 '금융업계 입사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금융기업'으로 국민은행을 택한 응답자가 19.5%로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은행(11.9%)과 우리은행(10.3%)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으며 기업은행(7.8%), 삼성증권(6.3%), 농협(4.9%), 한국은행(4.0%), 미래에셋증권(3.7%), 국토

연철뉴스